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양재열* · 김상수** · 이주연***

〈요약〉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노인범죄, 저출산, 초고령사회, 사회적 갈등, 교환이론

*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위원 (제1저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교신저자)

*** KBS 제작본부 작가 (공동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노인기준 변화와 노인범죄 실태 III. 노인범죄 발생배경과 원인 IV. 초고령사회 전환기의 노인범죄 전망 V.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언론매체의 시각 VI. 결 론 |
|---|

I. 서 론

17년 전 사회과학계에서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 명,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라는 화두를 던질 때(최성재 외, 2002: 1-40)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보건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세대 간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국가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행은 여러 사회적변수가 작용하고 있다(차민규·곽대경, 2014: 389). 그 중 저출산은 전체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와 함께 수명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노인의 증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OECD 가입국 1위로 45.7%를 나타내고 있다(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특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25%의

3배인 76.6%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의 빈곤은 범죄로 연계되어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51년 제2차 국제노년학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정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우리사회의 노인들도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으로 생계위협이 따르고, 물질만능이 지배함에 따라 빈곤과 함께 고립되고 소외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¹⁾되고 있어 곧 초고령사회²⁾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³⁾하였고,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가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문제와 실태를 분석하면서 노인의 빈곤문제, 질병문제, 가족문제, 보호문제, 성 문제, 학대문제 등의 연구에만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에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경로우대 등 사회보장제도에만 관심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박용순 외, 2008: 150-156).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사회의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로서 범죄의 유형도 폭력과 지능범죄가 주를 이루면서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

1) 국가별 고령 인구비율 7%에서 20%로 증가하는 기간

한국: 고령사회 도달 18년, 초고령사회 도달 8년(2026년 도달 예정)

일본: 고령사회 도달 24년, 초고령사회 도달 12년(2006년 이미 진입)

독일: 고령사회 도달 40년, 초고령사회 도달 38년(2010년 이미 진입)

미국: 고령사회 도달 72년, 초고령사회 도달 16년(2030년 도달 예정)

프랑스: 고령사회 도달 115년, 초고령사회 도달 40년(2019년 진입)

2) 고령화 판단기준: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3) 2010년 전남의 총인구 172만 9,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5만3000천명으로 20.4%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근거).

죄4(흉악)의 발생비는 29.6% 증가하였다(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 한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도 아래의 <표 1>과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4년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촉법소년이 2만 1,591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5년 이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구분	년도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합계
촉법소년(명)		6,551	6,576	7,533	7,364	7,006	28,024

출처: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2019.9.26. 국회의원 소병훈 보도자료 재구성.

따라서 노인범죄는 위와 같은 범죄에 문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렇게 노인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한 양(量)적 증가와 함께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의 재산범죄는 2008년 고령자 10만 명 당 189.8건에서 2017년 395.4건으로,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는 2008년 8.9건에서 2017년 2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다른 범죄군에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함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불안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도래를 2026년으로 예측하고 있는 2019년 통계청의 통계자료로 볼 때, 과거의 노인은 범죄 피해자였지만 최근의 자료는 범죄에 직접 참여하는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범죄가 청소년 범죄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불안요인이 될 것을 예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에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현재까지 진행된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를 참고하여 범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노인범죄 증가에 대한 예방책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 10세~18세 범죄자

〈표 2〉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년~2017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⁵⁾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08	189.8	-	8.9	-	181.1	-	282.3	-
2009	229.3	20.9	9.3	4.7	190.0	4.9	301.8	6.9
2010	203.6	7.3	10.0	11.6	169.2	-6.5	296.1	4.9
2011	200.5	5.7	10.7	20.4	175.7	-3.0	295.0	4.5
2012	257.8	35.8	13.4	50.2	192.1	6.1	323.0	14.4
2013	279.0	47.1	17.0	90.5	192.5	6.3	365.6	29.5
2014	314.9	66.0	19.5	119.0	216.9	19.8	444.1	57.3
2015	340.0	79.2	21.6	142.2	240.3	32.7	507.2	79.6
2016	377.4	98.9	23.4	162.6	249.9	38.0	534.0	89.1
2017	395.4	108.4	27.0	202.3	241.8	33.6	502.6	78.0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재인용.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가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원인과 현황 분석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범죄의 예방책을 제시함으로써 곧 도래하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자 범죄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자료를, 출산율 관련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자료와 장래인구특별추계 등 국가의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기존 연구논문과 최근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과 대응력을 준비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가 노인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의 체계화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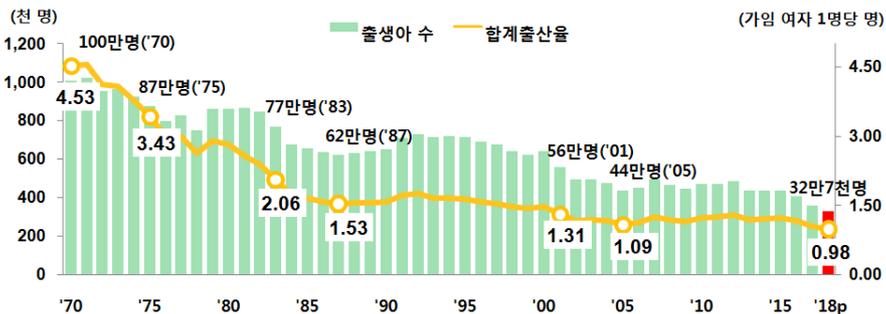
II. 노인기준 변화와 노인범죄 실태

1. 노인기준 변화의 필연성

20세기 들어서서 우리사회는 선진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남녀 평균 수명은 80세를 웃돌게 되었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 현상을 맞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요인을 분석하면 첫째,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생산성 감소,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 등 국가의 기반 및 기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 합계출산율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2017년 기준 1.052%에서 2018년에는 0.98명으로 7.1% 감소되고 있다. 1970년 103만 명, 1971년 105만 명, 1970년부터 1974년 5년 동안 480만 명의 신생아 출생이 2018년 32만7천명으로 급감한 것이다(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9.2.27. 보도자료).

-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
-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6.4명, 전년보다 0.6명(-8.8%) 감소



출처: 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9.2.27.보도자료 재인용.

<그림 1>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출산율

위의 <그림 1>과 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 기간을 18년 정도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는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40년, 일본 24년에 비교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이르는 기간이 독일 38년, 프랑스 40년, 미국 16년, 일본이 12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8년 정도의 걸림으로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노령인구가 14%를 넘게 되면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임박하게 된다는 것이다(최성재·장인협, 2010: 14).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년인구 증가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을 통해, 2067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통계는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6년에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 인구비율은 14.76%이며, 노령화지수⁶⁾는 104.8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통계청(2019), 인구추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이와 같은 인구통계는 우리사회가 이미 2018년을 기점으로 노년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정석, 2012: 49; 김웅철, 2017: 6; 통계청, 2016: 281). 이러한 진행 속도라면 2035년에는 사회구성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로 전체 인구의 28.7%로 예측된다는 우울한 숫자들이다(정경희, 2017: 19).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몇 세부터라는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밝힌 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외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 없다.

노인의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본격화 된 계기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독일 통일을 완성하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고, 그 방편으로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매일경제, 2019.2.26.). 이를 기초로 1950년 유엔은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하였으며, 우리의 복지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 사법부의 노인에 대한 판단기준도 이에 따르고 있다. 우리의 대법원도 육체노동 경첩직상 가동연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발전, 법제도의 정비

6)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

및 개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판결(대법원,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2019.2.21.)을 통해 그동안 노인의 노동능력을 만 60세에서 그 한계를 상향시킴에 따라 기존의 노인 판단기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의 연령기준 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급기야 대한노인회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부자동네타임즈, 2015.7.9).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2019.3.13.).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 속에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관련된 자료 중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통계가 각종 매체를 통해 비중있게 소개되면서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5년간 65세 이상 전체 운전자 가운데 75세 이상의 사고 비중이 32.8%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9.2.15. 보도자료). 즉 고령사회에 노인의 교통사고 비중 증가가 사회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노인범죄의 개념

범죄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죄. 특히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범죄의 개념은 문화,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중잣대에 의해 평가를 달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의 명칭도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거나 필요와 성격에 따라 여러 명칭이 붙기도 한다(오윤성, 2016: 7).

노인범죄도 노인만이 범할 수 있는 특수한 연령대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노인이 행위자로서 범행을 한 경우와 범행이 노인의 특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를 고령자 범죄, 노인범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이들이 범죄의 주체가 되며 행위자로 가담한 범죄로 의미하며, 형법범, 특별법범(행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이형국, 2017: 1).

아래의 <표 3>은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한 전체범죄 1,685,461건 중 노인범죄는 6.7%로 112,360건이 발생하였으며 고령범죄자의 범행 당시 최종별 성별 현황으로 남성 고령자의 범죄가 압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에서 강력범죄의 남성 고령자는 97.6%로 소외와 고립, 분노조절의 어려움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절도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71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핵가족화 현상 등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의 생계형 절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노인은 활동성이 감소됨으로서 성범죄에서는 배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노인들의 신체적·생리적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성폭속 범죄가 증가(뉴시스, 2015.10.27.)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3> 고령범죄자 범행시 성별 현황

구분	계	남자		여자	
		112,360	65-70세	71세 이상	65-70세
강력범죄 ⁷⁾	1,808	951	814	26	17
절도	11,431	3,274	4,109	1,808	2,240
폭력범죄 ⁸⁾	20,350	9,740	6,815	1,962	1,833
지능범죄 ⁹⁾	15,604	7,190	4,571	2,416	1,427
성폭속범죄 ¹⁰⁾	2,179	1,079	478	401	221
특별경제법	3,795	1,904	1,011	572	308
교통범죄	35,569	19,371	13,262	2,049	887
행정법 등 기타 ¹¹⁾	21,624	9,567	6,403	3,302	2,352

출처: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

3. 노인범죄 실태

보통 노인범죄에 대한 시각은 노인이 노화에 따른 행동의 장애와 같은 생리학적

7) 살인,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8)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9)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10) 성폭속범죄, 도박범죄

11) 미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등

인 특성과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었고 범행의 결과 자체가 경미한 상태라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에 노인의 등장은 어색하지 않은 역할이 되었다. 노인이 행위자로 범행을 하였던 사례는 아래와 같은 강력사건에서 나타나듯 적극, 대범, 잔인하였다.

살인사건으로는 2007년 8월 31일에는 전남 보성의 70살의 어부가 20대 남녀 대학생 2명을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로 나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학생 살해하여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반항하는 여학생을 바다에 밀어 빠뜨려 살해하였고, 동년 9월 25일에는 어선에 20대여성 2명을 태워 바다로 나가 한명을 성추행하다 물에 빠뜨려 살해하고 다른 여성이 범인과 몸싸움하다 함께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범인이 먼저 배에 올라온 후 빠진 여성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경향신문, 2007.10.1.).

또한 방화사건으로는 국보 제1호 남대문의 전각 부분 전소와 함께 붕괴된 사건은 69세의 인재 거주 노인이 토지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고 2008년 2월 11일, 1시 54분경 승례문을 방화한 사건(뉴시스, 2019.2.7.)이었으며,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화재로 치매와 중풍환자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였다. 치매환자인 83세 노인이 다용도실에 방화한 사건이다(SBS, 2014.5.28.).

2018.8.21. 21일 오전 9시15분쯤 2010년부터 소천면 임기리로 귀농하여 혼자 생활 하던 김모(82)씨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침입 후 무차별적으로 염총을 난사하여 면사무소 직원 손모(47)씨와 이모(39)씨가 가슴과 어깨 등에 큰 총상을 입고 치료중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했다. 김씨는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다(서울경제, 2018.8.21.).

최근에는 살인 가해자의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가해자의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1년 넘게 앙심을 품어오다 피해자가 이사를 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흥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4세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뉴스1코리아, 2019.4.3.). 우리사회 폭주노인¹²⁾의 방화와 살인범죄 현주소를 보는 사건들이다.

12) '폭력적인 노인'이란 뜻으로, 노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노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후지오라 도모미가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노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화 사회, 물질만능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에 속하지 못한 채 걸돌면서 느끼는 노인들의 고독이 결국 폭력으로 분출된다는 것이다.

노인의 분노에 의한 살인미수사건의 사례로, 2015년 7월 70대 노인 박모씨는 잠을 자고 있던 썩어부패한 40대 아들의 복부 등 신체 곳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70대 노인인 아버지는 군 제대 후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전전하던 아들을 20년간 부양하면서 자신이 살던 빌라까지 정리하여 지하주택으로 이사하며 아들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 몰래 지하주택을 담보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하였고, 노인은 아들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출금마저 탕진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아들이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아버지는 자수하였다(데일리한국, 2015.10.24).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노인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봉수는 노인 흉악범죄가 2011년 5.2%에서 2016년 12.5%로, 노인 폭력범죄는 동시기 6.2%에서 11.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봉수, 2018: 10).

이를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과 비교하여 유형별로 분석하면 아래의 <표 4>와 같이 나타나는데 폭주하는 노인세대 범죄 발생비율의 증가폭이 대단히 우려스런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4> 고령사회 전·후의 노인범죄 유형별 분석

구분	2008년	2017년	발생비율
재산범죄	189.8건	395.4건	108.4% 증가
강력범죄(흉악)	8.9건	27.0건	202.3% 증가
강력범죄(폭력)	181.1건	241.8건	33.6% 증가

출처: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표 4>는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범죄 발생비율을 보면 형법범죄자의 증가폭이 매우 커져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흉악)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의 범죄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흉폭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노인범죄 발생배경과 원인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며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물리적 자원의 교환을 인간 상호작용의 근본형태로 파악한다. 우리사회의 노인은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통해 소유한 지식과 기술, 생산능력, 소유재산 및 통제권 등(교환자원)의 가치와 양(量)은 젊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치와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환자원의 소유자가 되었다. 즉 노인들의 경제적 자원의 감소, 건강의 저하, 노쇠한 기술 등은 노인의 교환세력을 축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열등한 지위로 전락하고 권력적 열세에 몰리게 됨으로써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범죄가 발생된다 볼 수 있다. 즉,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요인들이 노인범죄에 있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1. 발생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1.8%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였으나, 2017년 기준 고령인구가 707만명으로 총인구 5,136만명의 13.8%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의 정점에 있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노년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2019), 인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

이와 같이 고령화 속도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수준의 불안정으로 인한 빈곤과 질병, 고독, 무위, 주거의 불안정, 노인 일자리 등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 될 여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범죄 발생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 신체적 특성

인간의 노화는 보편성, 비가역성, 불가피성, 퇴행성 등의 특성¹³⁾이 있다. 이들 특성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신체기능의 저하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만성질환이 증가하며, 노년기의 각종 질환은 정신적 불안과 욕구불만, 판단력 저하, 기타 신체적 반응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정영미, 2007: 71-86).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불안,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오고, 노인의 행동과 적응력 등 신체, 사회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노인범죄의 한 동기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어진’ 노인인구가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비(非)노인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 가해자로 그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장준오, 2009: 217).

3) 경제·사회적 특성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없는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못한 상태에 소득의 상실은 재앙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경제생활이 자립형이 대다수인 55%이며, 가족 의존형은 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은퇴로 소득이 중단되지만 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9년 기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5%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2015년 노인빈곤율 45.6%보다 0.9% 상승한 수치이다(한국일보, 2019.4.1). 이와 같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와 연금제도(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한국경제연구원, 2019.2.14). 노인빈곤율의 상승은 <표 4>와 같이 노인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노화는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다는 보편성, 한 번 늙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비가역성, 이걸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성, 늙으면 모든 기능이 손상되어 퇴화하는 퇴행성이라는 네 가지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YTN 사이언스(2017.9.26.): 고령 사회...; 노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상철 DGIST 웰에이징연구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중 발췌).

또한 노년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및 활동범위가 축소되고 사회의 기능적 역할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Urbanization)는 노인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노인들은 인생선배로서 존경과 배울 점이 많았다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세대 간의 이해부족과 갈등으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인 시각이 바뀐 것으로 소외와 푸대접에 따른 자존감의 하락이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었고 그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조성천, 2019.4.29).

4) 심리·정서적 특성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은 배우자와 사별, 친구 등 주변 인물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감증 등이 노인들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불면증, 감정적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 등의 우울증을 야기시킨다(최지용, 2009:17). 또한 노인은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심 불안감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홍금자 외, 2009: 305, 재인용).

정서적인 요인으로는 우울은 신체적·행동적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 중 노인자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흔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현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중 65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중 28.4%로 미국의 3.5배, 일본의 2.3배에 이르고 있다(중앙일보, 2017.9.9).

2. 노인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노화속도의 지연 등으로 전보다 신체적, 생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듯이, 노인범죄도 개인적 요소로서 성장과정 및 개인경험, 심리상태 및 질병, 그리고 경제적 상태 및 노후 생활환경 등이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노인범죄의 사례로는 ‘승례문 방화사건’,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엽총난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용혁은 “노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현상의 간접적인 투영”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에 여러 사회적 지위가 있던 노인들이 은퇴한 후 체면 손상이나 상실감을 느낀다. 노인이 무시받는 것 같은 정서를 느끼면서 분노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 박탈, 체면 손상 등이 분노로 연결되어 우발적인 범죄가 증가하게 되며, 범죄 동기를 제어해주는 요인들 중 배우자, 직업의 상실, 빈곤 등도 노인범죄 증가에 복합적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중앙일보, 2016.1.17. ‘고령화사회’ 노인범죄는 늘어만 가고…원인과 대책은, 인터뷰 내용 중).

2) 사회 환경적 원인

노인범죄의 개인적 발생요인은 노인도 환경속의 인간으로서 노인이 처해있는 사회 환경적 여건들과 연관되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실업에 따른 경제력 상실, 노인의 사회활동제한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숙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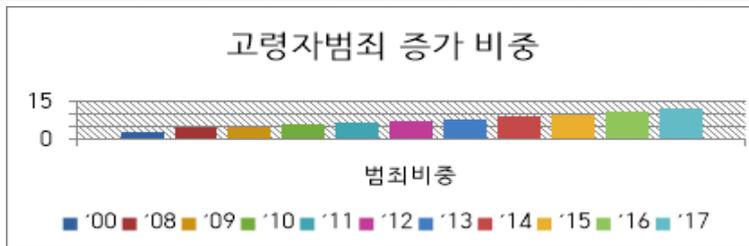
사회 환경적 원인에 속하는 예로서는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갈등, 가족과의 불화,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과 퇴직으로 인한 수입원 상실 등 경제적 요인과 아나로 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부적응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과 청년의 디지털 기술의 숙련도 차이는 60%에 이르고 있어 OECD 평균 27%에 2배가 넘고 있다(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3). 이 조사 결과와 같이 사회활동 제한 요인이 노인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V. 초고령사회 전환기의 노인범죄 전망

고령화사회였던 2008년부터 고령사회 진입기인 2017년까지 10년간 전체범죄의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범죄자의 비중은 아래의 <표 5>의 ‘고령자범죄 증가 비중’과 같이 7.5%p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20~40대 연령층의 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64세와 65세 이상 범죄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상우, 2018: 20-22).

〈표 5〉 10년간 전체범죄 중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범죄자의 비중

구분	'0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고령자 범죄증가 비중	2.4%	4.3%	4.8%	5.5%	6.2%	7.3%	7.8%	8.9%	9.8%	10.6%	11.8%
고령자 재산범죄자		5.1%	5.5%	5.9%	6.1%	7.0%	7.4%	8.7%	9.4%	10.9%	12.2%
고령자 강력범죄(흉악)		3.8%	3.6%	4.1%	4.3%	5.0%	6.0%	6.7%	7.4%	8.1%	8.7%
고령자 강력범죄(폭력)		4.1%	4.4%	4.8%	5.3%	6.0%	6.6%	7.5%	8.2%	9.0%	9.6%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및 2000 범죄분석〉 인용.

2000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18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고령자의 지속적인 범죄 증가의 유형을 분석하면 단연 재산범죄가 양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2008년 통계의 기준점으로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전부분의 범죄유형에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에서도 고령자의 재산범죄는 2008년 고령자 10만명 당 189.8건에서 2017년 395.4건으로,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는 2008년 8.9건에서 2017년 2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낸 <표 5>는 61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증가 추세가 고령인구 증가와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 범죄 증가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의 시작 해인 2000년의 61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 된 범죄자는 54,371명으로 전체 범죄자 2,241,635명 중 2.4%에 해당되었다(대검찰청, 2000년 범죄분석: 202). 그러나 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2017년에는 11.8%로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통계를 말하고 있다. 향후 고령자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노인복지부터 수용시설의 교정분야 등 여러 부분에서 제도개선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V. 초고령사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시각

최근 우리의 언론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많이 기사화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폭증을 ‘인구재난’이라 하며 그 시작이 2020년부터라고 이미 2015년에 많은 매체가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15.10.19). 이와 같은 재난 수준의 인구문제를 언론이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통계는 날로 암울해지고 있다.

〈표 6〉 초고령사회 관련 언론보도의 제목

(검색기간: 2019년 1월~2019년 6월)

언론사	제목	보도일
아시아경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7년”...전국, 고령화 속도격차 ↑	2019.1.8.
YTN	“명절에 고민해 보는 초고령사회”	2019.1.31.
시사저널	연금개혁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하는 영국	2019.2.28.
MBC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2019.3.25.
뉴스1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40년 후엔 부양비 OECD중 최고	2019.3.28.
서울경제	베이비부머 年 80만 은퇴...준비 안된 초고령사회	2019.3.30.
금융경제신문	보험업계가 ‘돌봄 경제’를 주목하는 까닭은?	2019.4.4.
한국일보	‘초고령 시한폭탄’ 핀란드, 복지개혁 성공할까	2019.4.7.
메디칼타임즈	말로만 초고령사회 걱정...정책적 배려는 없어	2019.4.8.
뉴스1	노인 진료비 감면 연령 ‘65→70세’ 상향...“초고령사회 대비”	2019.4.10.
Tv조선	“세차에 과일배달까지”...초고령사회 일본의 치매 극복기	2019.4.14.
디지털타임즈	초고령화 닭은꿎, 일본서 배우는 교훈	2019.4.14.
경안일보	안동시, 초고령 사회 적극 대응	2019.4.15.
한라일보	제주지역 16개 읍면동 초고령사회 진입	2019.4.16.
조선일보	고령화가 일본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흔든다	2019.4.25.
세계일보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 노인 고독사 늘어	2019.5.27.
신아일보	초고령·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2019.6.2

출처: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하여 인용.

특히 2019.2.21.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 판례에 따른 2019.2.22. 주요신문의 사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초고령사회 대비를 하여야 함을 모두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2019.9.23.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정년 연장 추진’이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7〉 대법원 판례를 보는 주요신문 사설과 정년연장 추진 보도 제목

언론사	사설 제목
경향신문	사회·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
서울신문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사회·경제적 과장 대비해야
한겨레	노동연한 65살,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한국일보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판결, 초고령사회 대비 논의 서둘러야
서울경제	‘육체노동 정년 65세’ 사회경제정책 다시 짜라
세계일보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후유증 최소화해야
주간한국	정년 연장될 듯...어른 살피는 정부
이데일리	文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日서 수입한 이유
국민일보	정부, 계속고용제 추진... 정년 연장 공론화

출처: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을 검색하여 인용.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8년 만에 ‘고령→ 초고령’... 암울한 전망만 남았다”라는 비관적인 제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의 빠른 속도에 심각성을 부각한 보도내용(세계일보, 2019.3.28.)은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나 그 중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 전남은 22%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이 이미 일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경북매일, 2019.2.2.).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사회의 가치, 규범, 그리고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혹은 그 사회로 편입된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이주연, 2018: 119). 이들 언론매체가 노인범죄 사건을 대중에게 보도하는 경우 범죄를 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도하며 감성위주의 태도를 취하는 본질에 대응보다는 범죄의 원인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초고령사회 진입 경고가 어느 정도인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도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쉽게도 이들 매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측면과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남성 고령자의 강력범죄 발생원인을 97.6%가 소외와 고립, 분노조절의 어려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절도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71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핵가족화 현상 등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의 생계형 절도로 이어짐이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문제인 생계유지를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퇴 후에도 본인의 관심사와 경험이 동반된 ‘일자리’를 찾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거시적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발굴·시행하여 노인의 사회 활동과 자아성취를 통한 노년기의 새로운 활기를 찾아줌으로써 초고령사회의 노인범죄 예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는 노인범죄가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으며 증가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16년 13%에서 2019년 현재 15%로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관계 해체, 노후 준비가 부족한 빈곤노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범죄자중 61세 이상의 재산범죄자가 2017년 기준 전체 재산범죄 404,768건 중 12.2%인 49,502건을 볼 때, 건강한 고령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뿐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 전, 후 시기의 노인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표 2>와 <표 3>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17년 사이의 재산범죄 발생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과 금전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구 고령화의 빠른 속도와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현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는 2005년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회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구의 27.3%가 고령인구(2018년 기준)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령인구를 가진 국가로써 노인들은 빈곤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도소를 택하고 있다. 1997년 이 연령대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유죄판결 20건 중 1건에 불과하였으나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그 수치는 5건 중 1건으로 증가하였다. 즉 전체 제조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범죄원인이 빈곤, 가정불화, 질병 등으로 밝

혀지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 600만 명에 이르면서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이 고의로 단순절도를 하여 선택적 감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고령자 범죄의 특징으로 한번 교도소에 입감됐던 고령자가 재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2016년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65세 이상 피고인 2,500명 중 1/3 이상이 과거 5번 이상 범법행위를 할 정도로 재범율도 높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수령하고 있는 연금으로도 생활이 곤란한 빈곤의 심화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8.10.5.; BBC NEWS, 2019.2.2.).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노인의 강력범죄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은 19%에 이르고 있으며 2015부터 2018년, 4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범죄가 총 4,087건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2015년 1,207건, 2016년 1,375건, 2017년 1,521건, 2018년 1,573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절도범죄는 생활형 범죄가 많았으며 그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2018년 483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그 원인을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음에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경북매일, 2019.2.2.).

위와 같은 고령범죄자의 전과 여부에 대한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9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노안이 9.1%로 나타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고령범죄자 전과 현황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112,360 (%)	20,351 (18.1)	10,855 (9.7)	7,955 (7.1)	5,948 (5.3)	4,463 (4.0)	3,522 (3.1)
	6범	7범	8범	9범	미상	
	2,774 (2.5)	2,230 (2.0)	1,687 (1.5)	10,225 (9.1)	42,400 (37.7)	

출처: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

더욱 문제는 이들의 범죄원인 및 범행동기가 우발적이라는 것이다.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는 고령자범죄의 13.1%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충동에 의한 우발적 동기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

시대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 원인은 노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부정적인 편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에 대한 극단적 해석과 회피, 대중매체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과장 보도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세대간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이준우, 2013: 12-30).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노인에 대한 입장접근이 미흡하였음을 인식하고 노인에 대한 이해와 충동통제에 보다 많은 정책의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된다면 자존감의 상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 곤란 노인들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인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적 원인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빈곤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경제적인 이유, 둘째, 노인간의 갈등(老老갈등)으로 특정 노인에 대한 왕따 문제, 셋째, 육체적 허약 상태나 판단력의 저하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다. 최근 노노갈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로 경로당 노인들끼리 화투를 치다가 발생한 갈등이 다수 노인들에 대한 농약 살인 사건으로 변진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노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원인에 맞추어 대응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00년에 시작된 고령화 사회가 2018년 고령 사회로 짧은 시기에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통해 현재까지의 발생 노인범죄를 분석하고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향후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속히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웅철 (2017).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서울: 페이퍼로드.
- 민수홍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연구원.
-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중호 (2008). **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이상우 (2018). **고령자 범죄현황과 특징**. 보험연구원.
- 이정석 (2012).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양상 및 정책 과제: 미래 환경수요 전망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전망. **과학기술정책**, 22(3).
- 이주연 (2018).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보도에 대한 의미구조와 담론구조분석: KBS, SBS, TV 보도에 대한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우 (201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서울: 파란마음.
- 이형국 (2017). 노인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56(1).
- 장준우 (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215-255.
- 정경희 (201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 정영미 (2007). 여성노인의 우울에 따른 건강상태 및 우울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7(1), 71-86.
- 조성천 (2019). 노인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금강일보**.
- 차민규, 곽대경 (2014).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 41, 387-408.
-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24(2), 1-41.
-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후지타 다카노리, 홍성민 (2016).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

2. 기타자료

- BBC NEWS (2019.2.2). **고령사회: 일본 노인들이 스스로 '철창 안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
- OECD (2017).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 SBS (2014.5.18). **장성 요양병원 화재원인 '알고보니 방화' CCTV 확인 결과?**.
- 경북매일 (2019.2.2). **경제적 빈곤 탓? 도내 '황혼범죄' 급증?**.
- 경향신문 (2017.10.1). **70대 노인 '빛나간 욕장'...배 태워 성추행하려다 20대 여성 2명 살해**.
- 뉴스1코리아 (2019.4.3). **이웃간 불화 1년 뒤 살인으로 보복한 60대 징역 20년**.

- 뉴시스 (2015.10.27.). 누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나.
- 뉴시스 (2019.2.7.). 잊지말자 송례문 화재, 2월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 대법원,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직상 가동연한, 2019.2.21.
- 데일리한국 (2015.10.24.). 부모에 의존하는 ‘갱겨루족’ 급증.
- 도로교통공단, 2019.2.15. 보도자료.
- 매일경제 (2015.1.2.). 초고령사회 눈앞 한국 핵심은 돈…연금·일자리 대책 절실.
- 매일경제 (2019.2.26.). 노인기준 65세 시초는 1889년 獨 비스마르크…유엔은 80세부터 노인.
- 머니투데이 (2019.3.13.). 표 떨어질라..정부도 국회도 손 놓은 노인연령상향.
- 부자동네타임즈 (2015.7.9.).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해야(대한노인회).
- 서울경제 (2018.8.21.).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업종 난사사건 부상자 1명, 결국 사망.
- 세계일보 (2019.3.28.). 8년 만에 ‘고령→ 초고령’.. 암울한 전망만 남았다.
- 아시아투데이 (2018.10.5.). 난 꼭 감옥간다,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가는 일본 교도소.
- 중앙일보 (2017.10.13.). 젊은 노인 활발한 성생활에…60대 이상 성병 환자, 4년새 급증.
- 중앙일보 (2017.9.9.). OECD 노인자살 세계 최고…고령화 사회 ‘슬픈 자화상’.
- 통계청 (2019).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9.2.27.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2019 인구추계.
- 한국경제연구원 (2019.2.14.). 가구 빈곤 심화, 원인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 한국일보 (2019.4.11.). 노인복지 연령 65→70세, 신호탄 쏜 정부.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e Transition of Elderly Society

Yang, Jae Yeol · Kim, Sang Su · Lee, Ju Yeon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changing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low birth rate along with the extension of life spa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It was not long before the population became older, and the problem of the elderly was amplified by generational conflict. The current generation of senior citizens could not afford to prepare for their own retirement income due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marriage and housing problems, and is a generation alienated from the benefits of public income security. In addition, not only are they in poverty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economic instability, but they are also threatened with livelihood. The increase in elderly crimes arising from the elderly, who are less adaptable to our society dominated by materialism, is being highlighted as a new social issu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causes of violent and violent senior citizens' crimes in quality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and present criminal situ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using 10 years of data, judging that this is a time when a national response is needed through a social discussion on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our society, where the pace of aging is unprecedentedly fast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various opinions and statistical data of our society where the standards of senior citizens are changing were reviewed, and analysis of crimes was conducted on literature utilizing data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cent press releases,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In this study, we will diagnose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view of the elderly in the present society,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as well.

Keywords: Senile crime, Low birth rate, Post-aged society, Social conflict, Exchange theory